

2026 가을학기 유럽인문 아카데미

2026. 8. 31. (월) 개강
2026. 11. 6. (금) 종강

〈미셀 푸코 탄생 100주년 기념 기획특강〉

미셀 푸코 사상의 파노라마

심세광, 이광근, 전혜리

올해로 탄생 100주년, 사망 42주년이 되는 푸코. 그의 사유는 다양한 분야에서 영감을 주었고, 비판적 사유와 실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참조점들 중 하나가 되었다. 그러나 많이 인용되는 만큼 오해도 많이 받는 그. 여기서는 그의 사유를 개괄함으로써, 어떻게 그의 사유를 우리 삶의 영역에서 효과적으로, 오해를 피하면서 활용할지 모색해 보려 한다.

2026년도 가을학기 정규 프로그램

2026년도 가을학기 정규 프로그램 ■ 입문강의 ■ 강의 ■ 세미나 ■ 원전강독

	월	화	수	목	금
1교시 14:30 -16:20			박규희 인간의 조건 — 중세와 르네상스의 철학적 인간학	문경훈 온라인 프랑스 비극 읽기	김태수 현대 역사학의 역사 — 랑케에서 글로벌 히스토리아까지 도하나, 박문정 텍스트와 선물 사이 인간 — 이탈리아 오페라
2교시 16:40 -18:30	신정훈 방전과 탈냉전시대 유럽의 보수주의와 극우주의 최성만 미메시스와 인간 I	고반석 온라인 북유럽 르네상스의 중심지, 부르고뉴 궁정 이야기 김재훈 아리스토텔레스 '생물학 저작'에서의 '인간학'의 위상과 목표 권희진 비트겐슈타인의 후기철학 — 『확실성에 관하여』 읽기 II 이재훈 온라인 데카르트의 형이상학 — 데카르트의 『성찰』과 데카르트적 성찰들	박문정 현대의 미로에서 단테를 읽다 — 『신곡』 읽기 신정환 스페인 황금 세기와 바로크 문학의 주인공 — 『돈 후안』과 『돈 키호테』 허민준 추론의 응용을 찾아서 — 아리스토텔레스 『분석론 전서』 제2권, 23-27장 독해	김동훈 미학 강의 II — 현대예술의 키워드들 이승진 브레히트의 서사극 같이 읽기 II	도하나 음악의 생각 — 피타고라스에서 전자음악까지 김종진 영국 경험론 임종원 온라인 『군주론』 읽기 — 마키아벨리와 마키아벨리즘의 간극 최성철 부르크하르트의 『세계사적 고찰』 원전 강독 II
3교시 19:30 -21:20	김덕영 게오르크 짐멜 — 다층적 모더니티 이론가 김홍 온라인 안셀무스 강독 I — 『결단의 자유』와 『악마의 타락』 최열만 에드문트 후설의 몸의 현상학	김대보 온라인 프랑스혁명 자체히 보기 추은혜 온라인 메를로-퐁티의 『눈과 정신』 읽기 — 회화와 감각적 세계 홍승홍 온라인 변증법적 『미학이론』 독해 홍종진 근대 서유럽을 만든 힘 — 전쟁, 자본, 과학 (III) 정준영 플라톤의 『국가』 깊이 읽기 I (1권-4권) 문준영 가예타노 살베미니의 『이탈리아 파시즘의 기원』 강독 I	강병호 J. 하버마스의 삶과 사상 김종희 온라인 『자본론』의 경제학적 이해 김석모 온라인 독일 현대미술 —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동시대 미술까지 이진욱 온라인 유럽사의 주변부 사람들 — 유대인, 무슬림 그리고 유색민 etc. 황기우 디지털 역사란 무엇인가? — 디지털 역사 방법론과 역사 철학적 이해 송홍진 온라인 보들레르 예술 비평의 세계	기획특강 온/오프라인 심세광, 이광근, 전혜리 미셀 푸코 사상의 파노라마 강성훈, 최홍찬 유럽영화 기행 — 역사와 비평 사이	김시형 왜 배이컨인가? 배이컨 철학의 이해와 재평가 서지형 신경증과 우울의 자리들 — 라캉, 크리스테바, 멜라니 클라인 반기현 베게티우스의 『군사론』 (De Re Militari) 원전강독 II 이재영 온라인 프리드리히 쉴러의 『인간의 미적 교육에 대한 편지』 원전강독 V

유럽인문아카데미는 유럽 인문학 공부를 통해 우리의 삶과 사회를 성찰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지성의 공간입니다. 유럽을 거울로 우리의 삶을 비춰보고, 이를 통해 더 나은 사회를 꿈꾸는 비판적 인문학의 마당이 되고자 합니다.

장소 김희경유럽정신문화장학재단 (서울 서초구 매현로6길 54)

수강료 1교시(2시간)당 1만 원 (10주 강좌 10만 원)

신청 홈페이지 www.aeh.kr 회원가입 후 수강신청

신청기간 2026년 8. 18. (화) 14:00 ~ 8. 31. (월) 10:00

찾아오시는 길



지하철 3호선 양재역 하차

- 10번 출구로 나와 08번 마을버스 승차
- 더케이 호텔 후문 하차 후 길 건너 도로로 5분

지하철 신분당선 양재시민의 숲역 하차

- 5번 출구에서 도로로 10분

2026 가을학기 강좌소개

기획특강

온/오프라인 동시진행

■ **미셀 푸코 사상의 파노라마** 심재광, 이광근, 전해리 목 3교시(19:30-21:20)
올해로 푸코는 태어난 지 100년, 사망한 지 42년이 되었다. 그간 푸코의 사유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며 영감을 주었고, 오늘날 비판적 사유와 실천을 하고자 할 때 배울을 수 없는 중요한 참조점을 중 하나가 되었다. 그러나 푸코는 많이 인용되고 활용되는 만큼이나 오해도 많이 받는 사상가들 중 하나다. 이 강좌에서는 푸코의 사유를 차별로 개념함으로써, 어떻게 푸코의 사유를 우리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효과적으로, 그러나 가능한 한 오해를 피하면서 활용할 수 있을지를 모색해 보고자 한다.

입문강의

■ **J. 하버마스의 삶과 사상** 강병호 수 3교시(19:30-21:20)

하버마스(1929~2026)는 의학의 여지 없이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철학자와 사회이론가 중 한 명이다. 그의 이론은 방대하고 중요한 만큼 어렵다. 이 강좌는 그의 주요 개념과 저서를 심пар리로 삼아서 가능한 한 쉽게 그의 학문 전반을 조망하려 한다. 주마간산 구경이 아니라 그의 문제의식과 사상의 핵심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 **유럽영화 기행 — 역사와 비평 사이** 강성률, 최용찬 목 3교시(19:30-21:20)

영화로 유럽을 여행할 수 있는 기회. 영국, 프랑스, 러시아, 네덜란드 등을 배경으로 한 10편의 영화와 여행했다. 영화사학과 영화평론가의 2인 2색 강의를 통해 이전에는 몰랐던 유럽에 대해 함께 고민할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 **북유럽 르네상스의 중심지, 부르고뉴 궁정 이야기** 고반석 화 2교시(16:40-18:30)

왕은 아니었지만 왕보다 화려했던 부르고뉴 공작들. 14~15세기 부르고뉴 궁정을 중심으로 외교와 전쟁, 기사도 문화, 저지대 도시경제와 북유럽 회화를 통해 르네상스로 넘어가는 중세 유럽을 만난다.

■ **『자본론』의 경제학적 이해** 김공희 수 3교시(19:30-21:20)

‘자본론’을 ‘읽는 그대로’ 읽는다는 것은 그것을 경제학적으로 읽는 것이며, 다른 모든 독해는 거기에 부리를 들 수밖에 없다. 이 강좌는 마르크스주의 역사에서 격하되기도 했던 경제학적 독해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나아가 이를 오늘날의 경제(학)에 대한 우리 사고를 세신하는 기회로 삼고자 기획되었다. 이 독해는 경제와 경제학의 간선이 요동치는 오늘 의의가 더 크다.

■ **프랑스혁명 자세히 보기** 김대보 화 3교시(19:30-21:20)

우리가 알고 있는 프랑스혁명은 방상에 일각에 불과하며, 미디어는 프랑스혁명에 대한 오해를 심어주고 있다. 프랑스혁명을 제대로 알아보자.

■ **미학 강의 II — 현대예술의 키워드들** 김동훈 목 2교시(16:40-18:30)

19세기를 지나 20세기에 접어들면서 예술 영역에서는 전대미문의 변화가 시작되었다. 그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던 수많은 새로운 시도가 행해졌고 지금도 행해지고 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으며 이런 현상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어야 할까? 현대예술을 이해하는 데 꼭 필요한 키워드들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작품의 예를 통해 이런 의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는 수업이다.

■ **독일 현대미술 —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동시대 미술까지** 김석수 수 3교시(19:30-21:20)

“호로코스트의 비극 이후에도 예술은 가능한가?” 뉴욕과 파리가 미치 담지 못한 역사의 얼룩을 가장 치열하게 마주해 온 독일 현대미술. 1945년 영점(ZERO)의 폐허에서 동시대 디지털 미술까지, 요셉 보이스와 게르하르트 리히터를 거쳐 건 파란만장한 예술의 최전선을 목격하라. 역사적 트라우마를 전복의 무기로 삼은 뜨거운 여정이 시작된다.

■ **아리스토텔레스 ‘생물학 저작’에서의 ‘인간학’의 위상과 목표** 김재홍 화 2교시(16:40-18:30)

‘자연은 결코 헛된 일을 하지 않는다.’ 이 명제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적 사고가 가장 잘 드러난다. 그동안 소홀히 취급되어 온 생물학에 대한 이해 없이 그의 형이상학과 윤리학, 자연과학의 이해는 불가능할 것이다. 그의 철학과 방법론은 기본적으로 생물학적 세계관에 더 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그의 생물학적 철학에 대한 공부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 **현대 역사학의 역사 — 랑케에서 글로벌 히스토리까지** 김태수 금 1교시(14:30-16:20)

역사가들은 언제나 “과거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라는 질문과 씨름해왔다. 역사학은 단순한 사실의 집적이 아니라, 시대마다 새롭게 쓰이는 지식의 전경이었다. 이 강좌는 근대 역사학의 탄생부터 기원과 트라우마, 그리고 21세기 글로벌 히스토리까지, 현대 역사학 자체의 역사를 8주에 걸쳐 추적한다.

■ **음악의 생각 — 피타고라스에서 전자음악까지** 도하나 금 2교시(16:40-18:30)

피타고라스에서 전자음악까지 각 시대 ‘음악의 생각’을 들여다보는 듣고, 보고, 느끼며 쉽게 다가가는 음악미학 개론 수업.

■ **인간의 조건 — 중세와 르네상스의 철학적 인간학** 박규희 수 1교시(14:30-16:20)

나는 남부럽지 않은 삶, 좋은 삶을 살고 싶다. 그런데 나는 나 스스로 납득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고전 철학자들은 이해하는 삶을 살 때에 우리가 존엄한 삶을 산다고 말한다. 게다가 합리적인 삶은 모든 인간에게 보편적으로 행복을 싣아주고 한다. 본 강좌는 인간다움에 관한 철학자들의 견해를 역사적으로 조망하는 수업이다.

■ **현대의 미로에서 단테를 읽다 — 『신곡』 읽기** 박문정 수 2교시(16:40-18:30)

인간의 심연에서 천상의 빛까지, 단테와 함께 걷는 10주의 여정. 왜 우리는 지금 『신곡』을 읽어야 하는가? 인생의 반고비에서 길을 잃은 시인의 고백은 삶의 미로를 헤매는 우리 모두를 향한 구원의 메시지다. 지옥과 연옥, 천국을 관통하는 대문호의 날카로운 지성과 활활한 비전이 펼쳐진다. 시공을 초월해 나를 찾는 위대한 고전의 우주로 단상을 초대한다.

■ **스페인 황금 세기와 바로크 문학의 주인공 — 『돈 후안』과 『돈키호테』** 신정환 수 2교시(16:40-18:30)

근대 개박의 변환기에 작가-예술가들은 바로크 미학을 통해 과도기의 혼돈과 시대정신의 변화를 재현한다. 특히 제국의 허망한 몰락을 체험하는 스페인 작가들은 냉소적 비판 의식과 예술적 상상력을 결합하면서 황금 세기를 낳았다. 이 강좌는 중세 감동을 입고 근대의 신세계로 돌진한 과도기 인간의 환멸이 어떻게 배어난 문학 작품으로 형상화되는지 살펴본다.

■ **유럽사의 주변부 사람들 — 유대인, 무슬림 그리고 유색인 etc.** 이진옥 수 3교시(19:30-21:20)

유럽사에서 유대인들은 왜 박해받아야 했는가, 그들은 왜 ‘절멸’의 대상이 되었는가? 이러한 대상이 그들뿐이었는가? 무슬림과 유색인 그리고 여성에 대해서는? 그리고 노동자계급은? 그들의 이야기를 들려주고자 한다.

■ **디지털 역사란 무엇인가? — 디지털 역사 방법론과 역사 철학적 이해** 황기우 수 3교시(19:30-21:20)

과거는 기록되는 것을 넘어 이제 계산되고 시뮬레이션된다! (역사철학과 디지털 역사학)은 역사철학의 핵심 쟁점과 AI, 빅데이터, 네트워크 분석, 행위자기반모델(ABM) 등 최신 디지털 방법론을 결합하여 역사를 새롭게 읽는 방법을 제시한다.

강의

■ **비트겐슈타인의 후기철학 — 『확실성에 관하여』 읽기 II** 권희진 화 2교시(16:40-18:30)

비트겐슈타인의 3대 걸작이라 평가받는 『확실성에 관하여』는 그가 죽기 이틀 전까지 써내려간 마지막 작품이다. 여기서 비트겐슈타인은 우리의 인식 및 행위의 궁극적인 기초가 무엇인지 탐구하면서 마침내는 의심 불가능한 것,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으로서 확실성에 다다른다. 본 강좌는 이 같은 비트겐슈타인의 사상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게오르그 짐멜 — 다층적 모더니티 이론가** 김덕영 월 3교시(19:30-21:20)

단순히 사회학자나 철학자가 아니라 사회학자 그 이상이며 철학자 그 이상인 게오르그 짐멜, 이화제적 가치가 펼쳐는 다층적 모더니티 탐문! 이 지적 모험은 수많은 모더니티의 단편을 관통하며 궁극적으로 개인과 그의 속명이라는 문제로 수렴한다. 짐멜이 그런 다양한 모더니티 풍경을 관조하고 이것들이 갖는 이론적-실천적 의미를 생각해 보기로 한다.

■ **왜 베이컨인가? — 근대인 철학의 이해와 재평가** 김시영 금 3교시(19:30-21:20)

급진된 경제 [인간 지식과 능력의 한계]를 넘어 대양으로 향하는 배로 상징되는 인간 정신은 세계의 주인임을 선포한다. (plus ultra)
1) 왜 지식이 지금까지 힘이 되지 못했는가?
2) 지식은 어떻게 해야 힘이 될 수 있는가?
3) 왜 지식은 힘이 되어야만 하는가?
새 가지 질문을 통해 베이컨 철학의 현대적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 탐구하고자 한다.

■ **안셀무스 강독 I — 『결단의 자유』와 『악마의 타락』** 김홍월 월 3교시(19:30-21:20)

전능하고 선한 신이 이성적 존재자로 창조한 천사와 인간은 왜 죄를 지을까? 정의란 무엇이고 죄란 무엇인가? 인간이 지닌 자유의 본질적 의미는 무엇일까? 이러한 질문에 대한 심오한 신학적 변증이 펼쳐지는 텍스트가 안셀무스의 『결단의 자유』와 『악마의 타락』이다. 스피라철학의 자유의지론 및 죄론을 결정적으로 정초한 이 논고들을 정독하며 토론한다.

■ **영국 경험론** 김종현 금 2교시(16:40-18:30)

데카르트로부터 시작된 관념 중심의 근대철학이 경험론을 만나 어떻게 변화되고 발전되어 왔는지를 로크, 버클리, 흄의 이론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프랑스 비극 읽기** 문경훈 목 1교시(14:30-16:20)

비극은 시대의 거울이자, 인간 존재의 가장 깊은 곳을 비추는 빛이다. 이 강좌는 연극 텍스트 읽기를 넘어, 시대가 던지는 비극적 질문들에 우리가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를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

■ **텍스트와 선물 사이 인간 — 이탈리아 오페라** 도하나, 박문정 금 1교시(14:30-16:20)

텍스트와 선물 사이 펼쳐지는 인간의 희로애락을 담은 이탈리아 오페라. 시대를 초월한 감동 속에서 삶과 예술이 하나 되는 순간을 함께 읽고 들어본다.

■ **신경증과 우울의 자리들 — 라캉, 크리스테바, 펠라니 클라인** 서지형 금 3교시(19:30-21:20)

나는 왜 신경을 쓰면 몸부터 아플까? 나는 왜 정리벽이 있는 사람이 되었을까? 나는 왜 허무와 열정에 찬 폭주를 반복할까? 모든 것은 나에 대한 의문에서부터 시작된다. 정신분석은 자기 배려의 학문이다. 나의 숨겨진 감박 불안, 우울의 근원으로 여러 이론과 함께 거슬러 올라가본다.

■ **보들레르 예술 비평의 세계** 송훈진 수 3교시(19:30-21:20)

19세기 파리의 한복판에서 한 시대의 저물과 새로운 미술의 태동을 감지한 선구적 미술비평가 보들레르. 다채로운 이미지로 채워진 그의 내밀한 상상미술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냉전과 탈냉전시대 유럽의 보수주의와 극우주의** 신정훈 월 2교시(16:40-18:30)

전후 유럽의 보수주의와 극우주의는 어떠한 관계를 맺어왔을까? 본 강좌는 독일을 중심으로 양자의 역사적 전개를 살펴보고, 최근 유럽 정치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극우 포퓰리즘의 배경과 특징을 탐구한다.

■ **데카르트의 형이상학 — 데카르트의 『성찰』과 데카르트적 성찰들** 이재춘 화 2교시(16:40-18:30)

데카르트의 『제1철학에 대한 성찰』은 근대 철학의 새로운 시작을 여는 사건이다. 데카르트 이후 새로운 철학을 창조하려는 철학자들은 이 사건을 반복하고 변형한다. 이 반복과 변형은 데카르트적 성찰이라 불릴 수 있다. 우리 강의는 데카르트 형이상학의 주제들을 공부하고 이것들에 대한 현대 철학자들의 독해를 공부한다.

■ **『군주론』 읽기 — 마키아벨리와 마키아벨리즘의 간극** 임동현 금 2교시(16:40-18:30)

‘악의 교사’와 ‘자유의 이론가’ 사이 마키아벨리의 진짜 모습은 무엇인가? 『군주론』 강독을 통해 마키아벨리를 둘러싼 수많은 논란의 진위를 파헤쳐본다.

■ **미메시스와 인간 I** 최성만 월 2교시(16:40-18:30)

이 강좌는 인간이 뛰어난 ‘미메시스 능력’(모방능력)을 지닌 존재라는 점에 착안하여 그 ‘미메시스’가 인간의 인식행위, 세계와 관계 맺기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지를 탐구하는 개론 과목이다.

■ **멜로로-퐁티의 『눈과 정신』 읽기 — 회화와 감각적 세계** 추은혜 화 3교시(19:30-21:20)

“퐁티가 내 안에서 스스로를 사유하며, 나는 그의 의식이다”라는 세잔의 말은 멜로로-퐁티로 하여금 보는 자와 보이는 세계의 근원적 얽힘을 사유하도록 이끈다. 본 강의는 멜로로-퐁티의 ‘눈과 정신」을 함께 읽으며 회화와 감각적 세계의 존재론적 의미를 탐구한다. 이를 통해 예술과 지각에 대한 새로운 사유의 가능성을 모색한다.

■ **변증법적 『미학이론』 독해** 황승용 화 3교시(19:30-21:20)

『미학이론』은 까다로운 현대예술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교양서의 범주를 넘어서, 현대사회의 위기와 관련지어 예술의 난제들을 해명하면서 위기 극복을 위한 우리의 적극적 사고를 부단히 촉발한다. 본 강좌는 『미학이론』이 재구성하는 자극과 통찰을 비판적·주체적으로 검토하고 이 시대에 절실히 필요한 대안을 모색하는 데에 역점을 둔다.

■ **근대 서유럽을 만든 힘 — 전쟁, 자본, 과학 III** 홍윤진 화 3교시(19:30-21:20)

서유럽 열강은 19세기 이후에야 전통적인 아시아의 대제국들에 대해 우위에 설 수 있었다. 14세기까지만 해도 후진적이었던 서유럽은 어떻게 비유럽 세계의 여러 나라와 지역들에 대해 우월한 위치에 올라설 수 있었을까? 중세 말에서 근대 전기까지, 즉 14~18세기에 이루어진 서유럽 사회의 변화과정을 전쟁, 자본, 과학이라는 세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세미나

■ **브레히트의 서사극 깊이 읽기 II** 이슬진 목 2교시(16:40-18:30)

본 강좌는 브레히트의 『마하곤카시의 흥망성쇠』, 『갈릴레이의 생애』 등의 서사극을 읽으면서 서사극은 전통 연극과 무엇을 달리하는가? 관객들에게 ‘감정이입을 하지 말고 이성적으로 연극을 관람하라’는 요구가 변증법적 서사와 생소와 기법을 통해 어떻게 무대에서 구현되는가? 등의 질문을 던지면서 각 작품별로 그 해답을 찾아갈 것이다.

■ **플라톤의 『국가』 깊이 읽기 I (1권-4권)** 정준영 화 3교시(19:30-21:20)

플라톤의 『국가』는 인류 최초의 정치철학서이다. 그럼에도 현대 정치철학자들은 여전히 『국가』를 가지고 씨름한다. 흔히 일컬어지듯 플라톤은 공산주의자인가, 또는 전체주의자인가? 이 강좌에서는 이런 시각들이 텍스트를 아주 포괄적으로 읽은 오독임을 밝혀려 한다. 또한 이 책의 실질적인 테마가 ‘인생’이라는 것과 그것의 의미를 해석하는 작업을 할 것이다.

■ **에드문트 후설의 몸의 현상학** 최일만 월 3교시(19:30-21:20)

현상학에서 주제는 신체적이다. 벗어날 수 없는 몸을 기준으로, 몸을 통해서 주제는 지각하고 실천하며 존재한다. 본 세미나에서는 에드문트 후설의 『니엄들 2권』을 중심으로 그가 주체의 신체성을 어떻게 기술하는지 살펴본다.

■ **추론의 응용을 찾아서 — 아리스토텔레스 『분석론 전서』 제2권, 23-27장 독해** 허민준 수 2교시(16:40-18:30)

“임신한 여인은 창백하다. 이 여인은 창백하다. 그러므로 임신했다.” 이 추론은 왜 배냐갈까? 귀납·예증·가설성립·이의·설득 추론까지, 아리스토텔레스 『분석론 전서』 제2권의 마지막 다섯 장을 읽으며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는 추론의 논리를 탐구한다.

원전강독

■ **가에타노 살베니니 『이탈리아 파시즘의 기원』 강독 I** 문준영 화 3교시(19:30-21:20)

20세기 극우 전체주의 이념의 원조 파시즘. 하버드 대학교 사회학과 역대 명장 시리즈 중 하나로 손꼽히는 가에타노 살베니니 교수의 강연록을 통해 이탈리아 파시즘의 기원과 집권 과정, 집권 세력으로서 파시스트 정권의 실체를 살펴본다.

■ **베게티우스의 『군사론』(De Re Militari) 원전강독 II** 반기현 금 3교시(19:30-21:20)

제정 후기 로마제국의 군대는 여전히 강력했는가? 닥쳐오는 군사적 위기에 어떻게 대처하였는가? 서양의 대표적인 군사고전인 베게티우스의 『군사론』(De Re Militari)을 통해 서기 4세기 로마제국의 군사(軍事)를 살펴본다.

■ **프리드리히 쉐러의 『인간의 미적 교육에 대한 편지』 원전강독 V** 이재영 금 3교시(19:30-21:20)

“인간은 유희할 때만 완전하다”는 말로 현대 사회와 인간의 분열 및 소외를 비판하고 미적, 예술적 교육을 문예·극복의 길로 제시한 쉐러의 『인간의 미적 교육에 대한 편지』는 예술론과 윤리학, 인간학, 역사철학 등 폭넓은 영역을 아우르는 이론적 모색과 성찰에 바탕하여 독창적인 미학을 전개한다. 그의 이론을 원본 그대로 충실히 따라가며 추적해본다.

■ **부르크하르트의 『세계사적 고찰』 원전강독 II** 최성철 금 2교시(16:40-18:30)

역사란 무엇인가? 역사란 무엇(잠재력)으로 구성되고 어떻게 작동하는가? 역사에서 위대한 무엇이고 위대한 누구인가? 19세기 독일이론에 속하는 스위스 바젤의 역사학자 야코프 부르크하르트의 명저 『세계사적 고찰』을 음미하면서 읽어 나가는 원전 강독 수업이다.